

KOREA

세계 속의 대한민국

2



위치와 면적

우리 국토는 동경 124°와 132° 사이, 북위 33°와 43° 사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북태평양 북서쪽에 있는 길쭉한 반도국이다.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육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 국토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거대한 태평양이 만나는 곳으로 과거부터 이곳저곳의 문화를 전달했으며, 독특한 문화를 키워왔다. 또한 베이징과 도쿄, 상하이는 2시간이면 갈 수 있으며, 중국, 일본을 넘어 동남 아시아, 러시아 등과의 높은 접근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가 되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경쟁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정학적 위치로 세계 정치, 세계 평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국토는 이러한 위치적 특성으로, 온대 및 냉대 기후에 속하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심하다.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경선은 동경 135°로 일본과 같고,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상에 있는 국가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알제리, 그리스,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있고, 비슷한 경도상에는 러시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우리 국토에서 지구 중심을 지나 정반대 쪽에 있는 대척점은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의 앞바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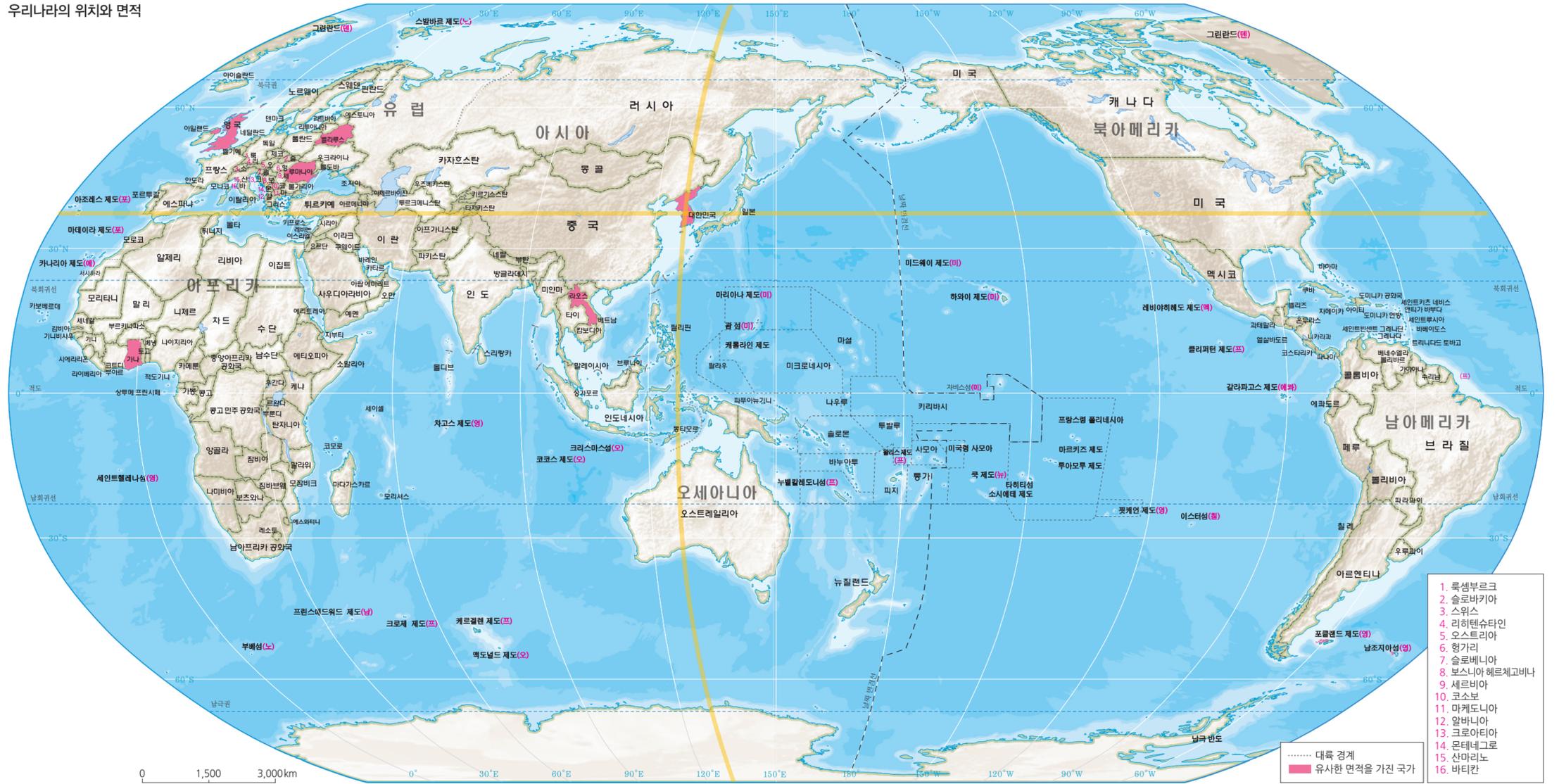
우리 국토의 면적은 남북한 전체 면적이 220,950km²로, 전 세계 218개 국가 가운데 84위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우리 국토보다 77.3배, 캐나다는 44.7배, 미국은 44.5배, 중국은 43.5배, 브라질은 38.5배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우리 국토보다 약 9.6배 크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도 약 2.7배 크다.

유사한 면적을 가진 나라는 영국(243,610km²), 가나(238,533km²), 루마니아(238,391km²), 라오스(236,800km²) 등이다. 남한의 면적은 100,410km²로 아이슬란드(103,000km²), 쿠바(110,860km²)와 견줄 수 있다.

거꾸로 세계 지도



우리나라의 위치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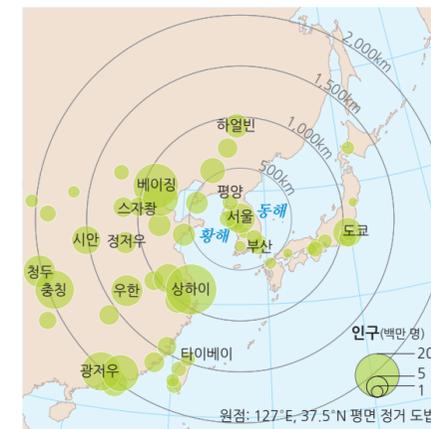
표준 시간대



각국의 수도까지의 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동아시아의 대도시



대륙별 국가 면적 비율



접근성과 잠재력

우리 국토는 대륙과 바다로 열려 있고, 아시아의 세계적인 도시들과 가까워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항공과 해운 노선을 통해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각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인천 국제공항은 전 세계 125개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이다. 2019년 인천 국제공항의 세계 허브 공항 순위는 11위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다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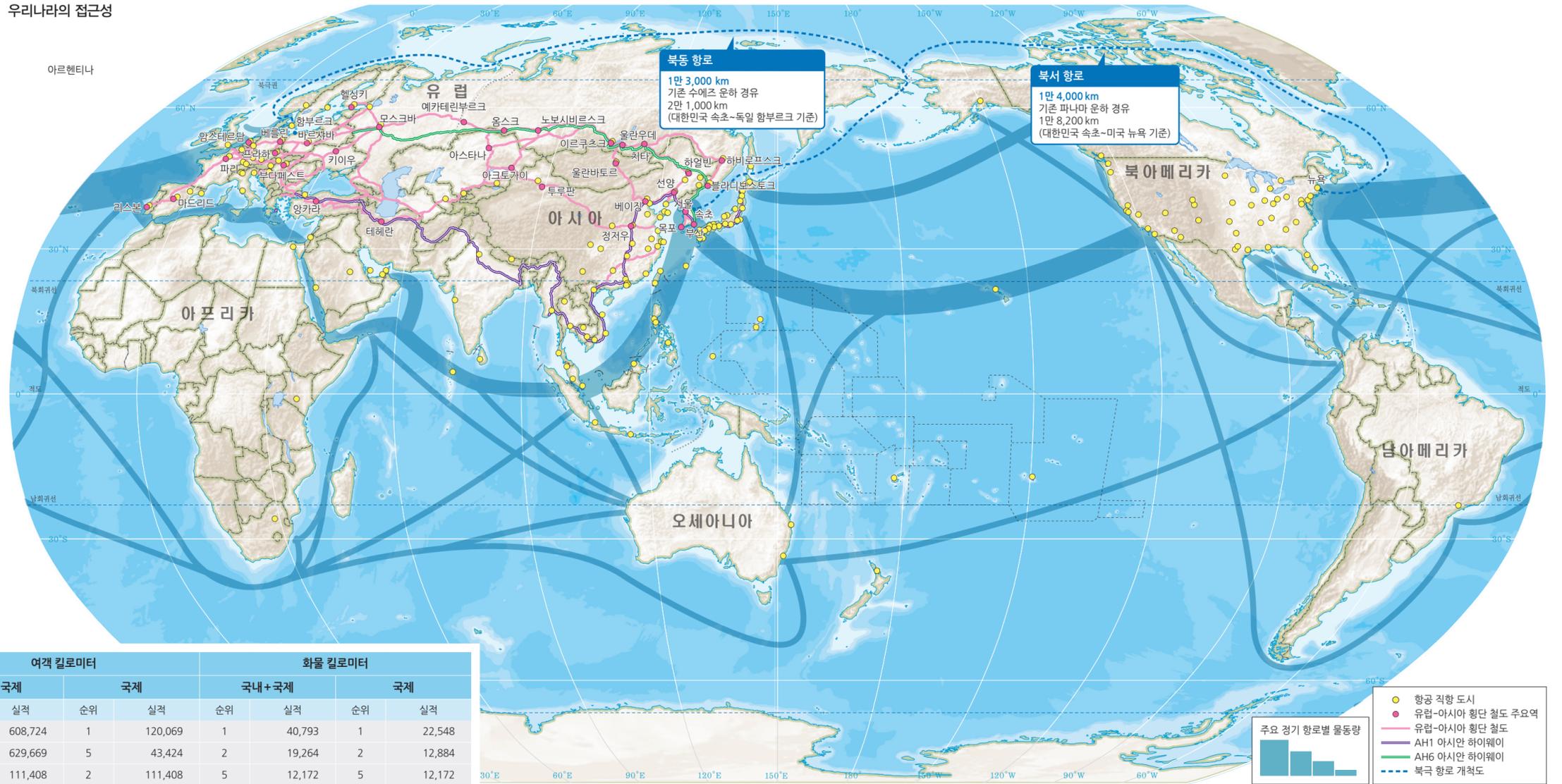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해운망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북아메리카 대륙 해운망의 중심에 있다. 항만 연결성 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항이 상하이항(중국), Ningbo항(중국), 싱가포르항(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항 또한 26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북극 항로가 현실이 되면 우리 국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세계 항공 운송 실적 순위(ICA0, 2020)

구분	톤 킬로미터				여객 킬로미터				화물 킬로미터			
	국내+국제		국제		국내+국제		국제		국내+국제		국제	
국가	순위	실적	순위	실적	순위	실적	순위	실적	순위	실적	순위	실적
미국	1	97,187	1	33,787	2	608,724	1	120,069	1	40,793	1	22,548
중국	2	76,403	2	16,931	1	629,669	5	43,424	2	19,264	2	12,884
아랍에미리트	3	23,054	3	23,054	4	111,408	2	111,408	5	12,172	5	12,172
카타르	4	18,876	4	18,876	13	57,173	6	57,173	3	13,544	3	13,544
대한민국	5	16,536	5	15,700	19	41,115	13	33,059	4	12,457	4	12,427
러시아	6	16,324	14	6,300	3	131,906	16	29,487	11	4,315	12	3,608
일본	7	14,765	9	9,778	10	66,233	19	22,545	6	7,842	7	7,272
튀르키예	8	14,421	6	12,739	8	73,686	7	56,019	8	6,870	8	6,849
독일	9	10,908	8	10,634	15	53,329	8	50,919	9	5,455	9	5,423
영국	10	10,856	7	10,652	7	75,331	4	73,016	12	3,675	11	3,674
네덜란드	11	9,524	10	9,401	18	41,585	11	40,492	10	5,305	10	5,292
프랑스	12	9,523	13	6,706	9	69,374	9	44,972	15	2,468	15	2,161
캐나다	13	8,669	15	6,058	11	62,757	10	42,996	16	2,306	17	1,681
인도	14	8,548	23	2,637	5	85,619	17	23,879	24	875	35	374
룩셈부르크	15	7,446	11	7,446	79	1,008	77	1,008	7	7,345	6	7,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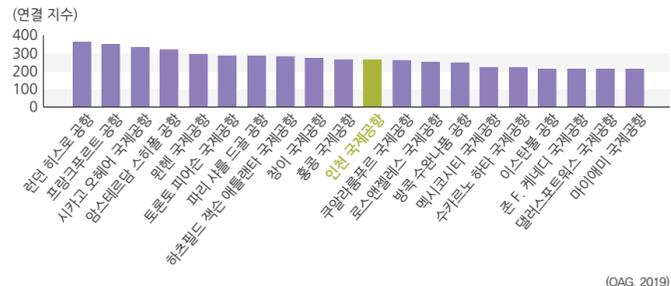
또한 아시아 대륙 횡단 철도(TAR)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중국 횡단 철도(TCR), 만주 횡단 철도(TMR), 몽골 횡단 철도(TMGR), 한반도 종단 철도(TKR) 등의 노선들로 연결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물류·교통망의 전진 기지이자 출발점, 관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한국철도공사는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정부 및 철도 운영 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으로 가입함으로써 대륙 횡단 철도 구상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접근성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주도로 추진 중인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망 연결을 통한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총 32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도로망 중 우리나라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타이-인도-파키스탄-이란-튀르키예 등으로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AH6) 등 2개 노선이 통과한다. 이들 도로는 중점 에서 유럽 고속 도로와 연결되어 유럽 곳곳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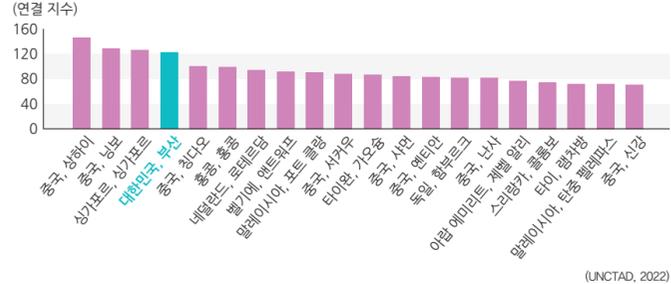
세계 허브 공항 순위



북극 항로와 현재 항로 비교



항만 연결성 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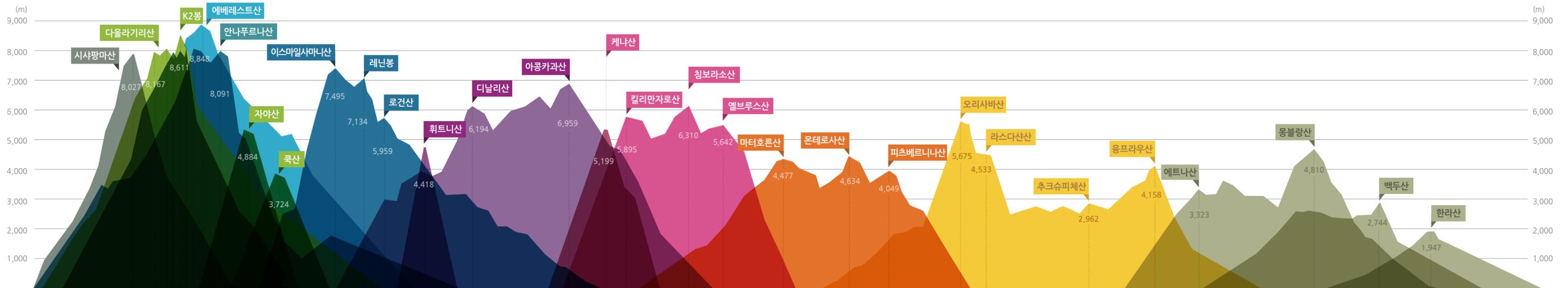
산

높은 산과 산맥은 기후와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3,000m 이상의 세계적인 산맥들은 유라시아에서는 위도 방향으로, 아메리카에서는 경도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이러한 산맥의 방향은 주로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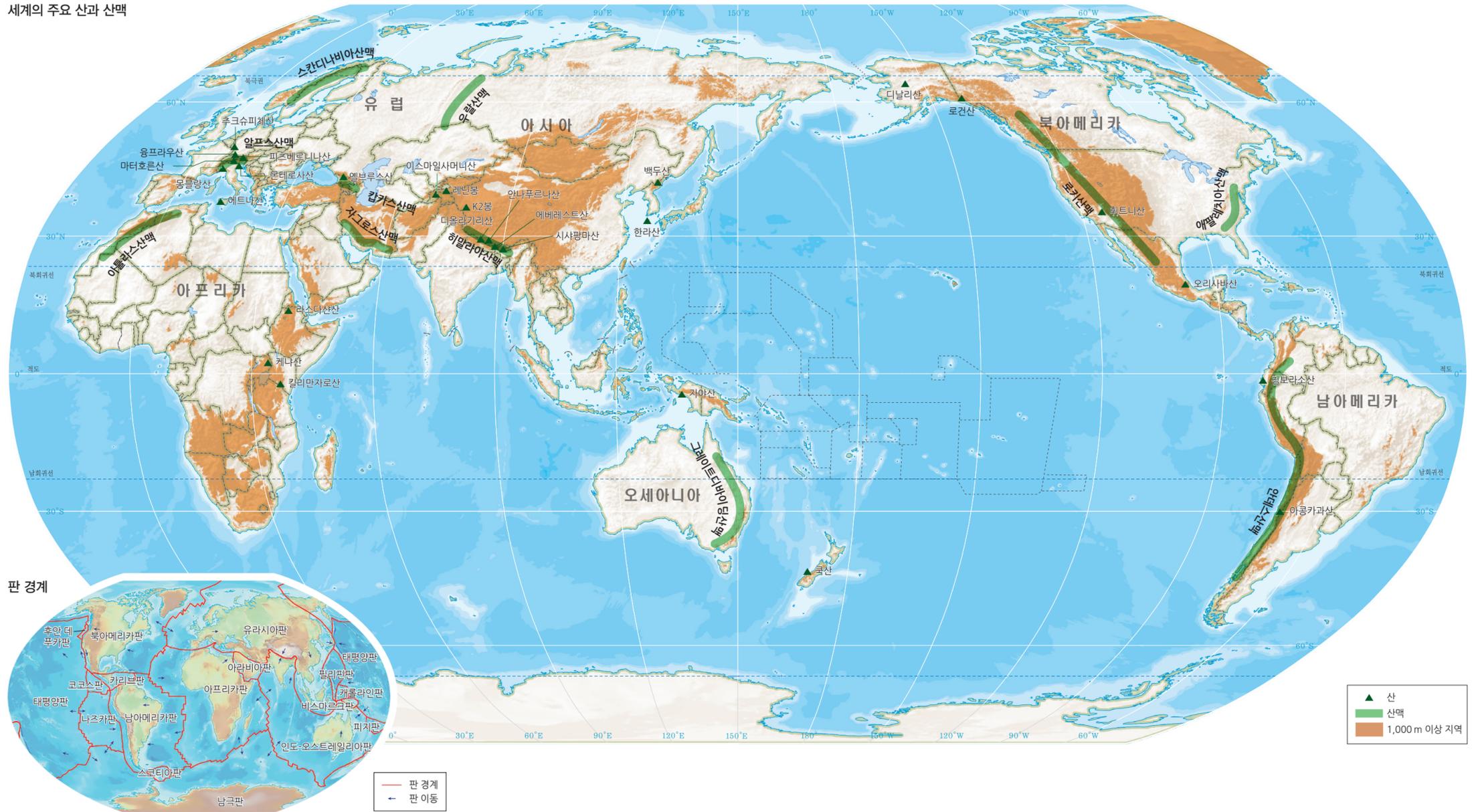
대표적인 산맥으로는 에베레스트(8,848m), K2(8,611m), 안나푸르나(8,091m) 등 높은 산들을 품고 있는 히말라야산맥이다. 파키스탄 북부에서 네팔, 부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산맥은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데, 지질학적으로 가장 최근에 형성된 산맥 중 하나이다. 또한 유럽 최대 산맥인 알프스산맥,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우랄산맥, 세계에서 가장 긴 안데스산맥,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에서 시작하여 서부를 따라 멕시코까지 연결되는 로키산맥 등도 대표적인 산맥이다. 이러한 큰 산맥들은 기후의 경계, 문화의 경계가 된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2,744m의 백두산이다. 백두산 정상에는 직경 3,550m의 큰 칼데라호(천지)가 있다. 백두산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이며, 오랫동안 민족의 영산으로 사랑받아 왔다. 옛사람들은 한반도의 모든 산이 백두산의 산줄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인 1,947m의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 산 정상의 분화구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으며, 약 370여개의 오름과 독특한 용암 동굴을 품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난대림부터 고산 식물대까지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나타난다.

주요 산의 높이



세계의 주요 산과 산맥



강

강이 지구 전체 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002%이다. 하지만 강을 중심으로 인류는 문명을 이루었고, 여전히 강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산에서 시작되어 바다로 유입되는 강은 침식·운반·퇴적 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형과 평야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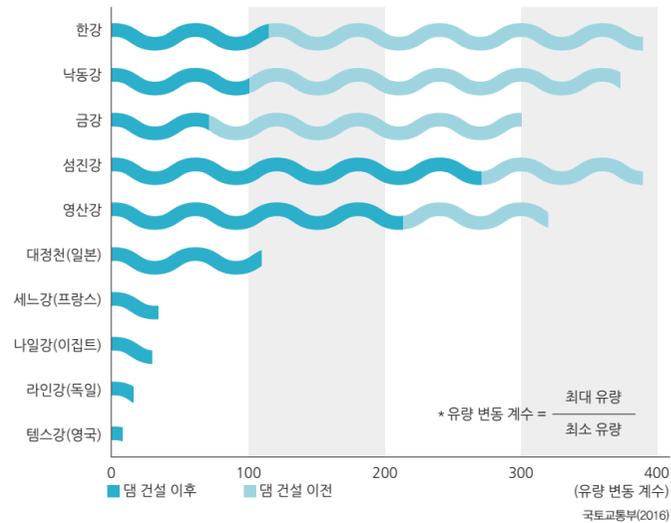
유역 면적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은 아마존강이다. 아마존강은 페루 남부 안데스산맥에서 시작하여 브라질을 가로질러 대서양까지 이어진 강으로, 전 세계 강물의 20%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아프리카 빅토리아호에서 시작하여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나일강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창장강과 실트 퇴적물을 운반하는 황허강,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긴 메콩강,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만든 서아시아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남아시아의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이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콜로라도강, 서유럽의 젓줄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까지 이어지는 라인강, 중앙아프리카의 콩고강, 1년 중 약 200일 정도 얼어 있는 러시아의 오비강, 오스트레일리아의 머리강 또한 대표적인 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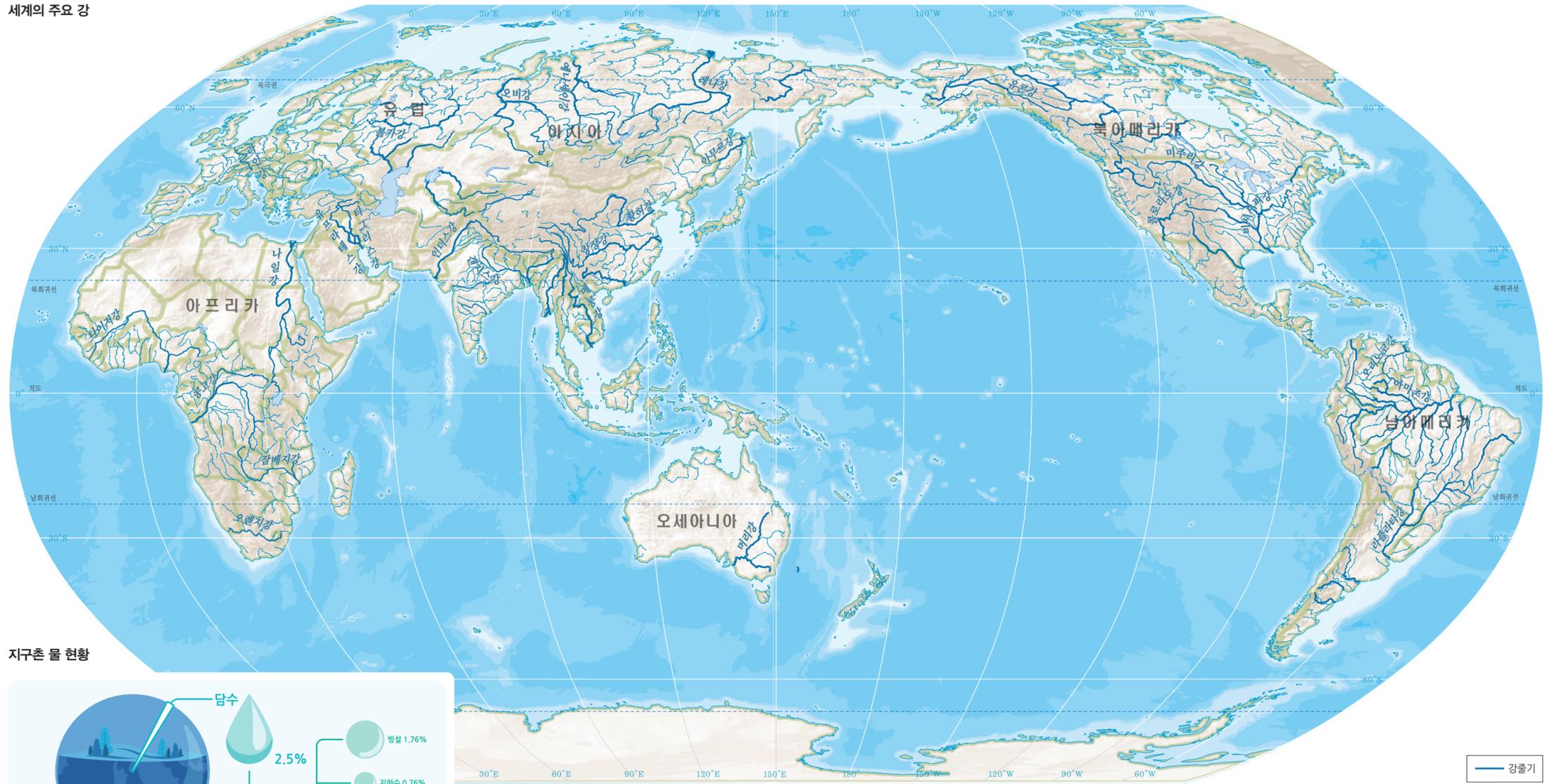
우리나라 강의 대표적인 특징은 유량 변동 계수(하상 계수)가 세계적인 강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에 수자원의 이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홍수가 잦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유역 면적도 넓은 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황해로 흐르는 압록강이다.

세계적인 하천은 두 국가 이상에 걸쳐 흐르거나 국경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물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압록강은 중국과 두만강은 중국,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고, 북한강과 임진강은 북한과 남한을 걸쳐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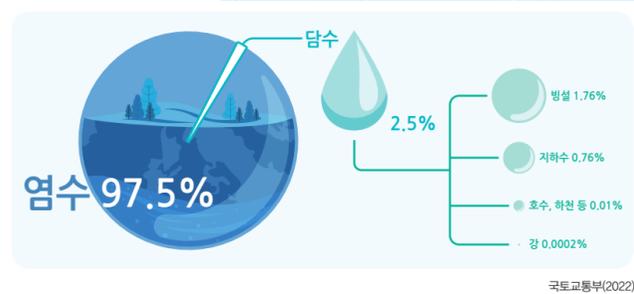
유량 변동 계수(199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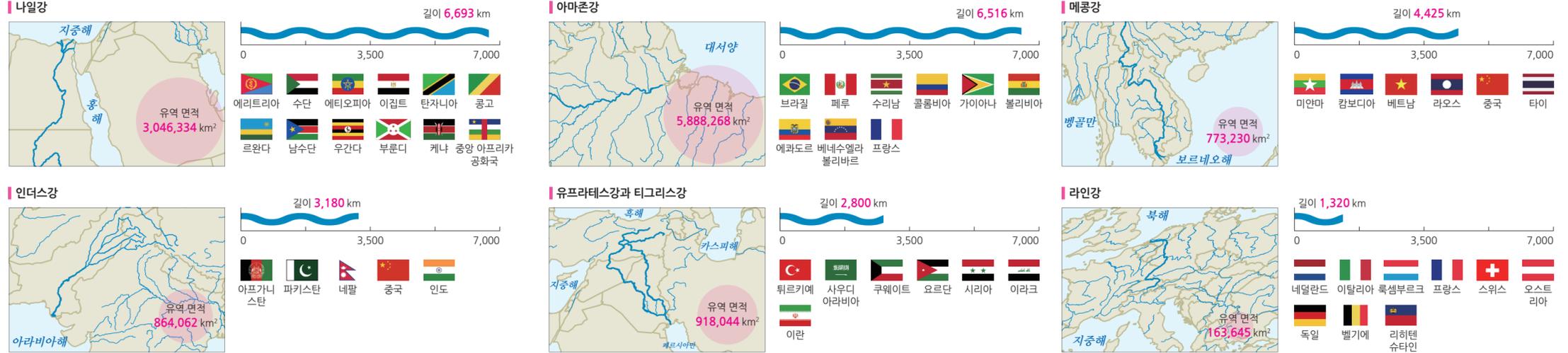
세계의 주요 강



지구촌 물 현황



주요 강의 길이



바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대양은 크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로 나뉘며, 대양 속에는 바다(부속해)와 만, 섬 등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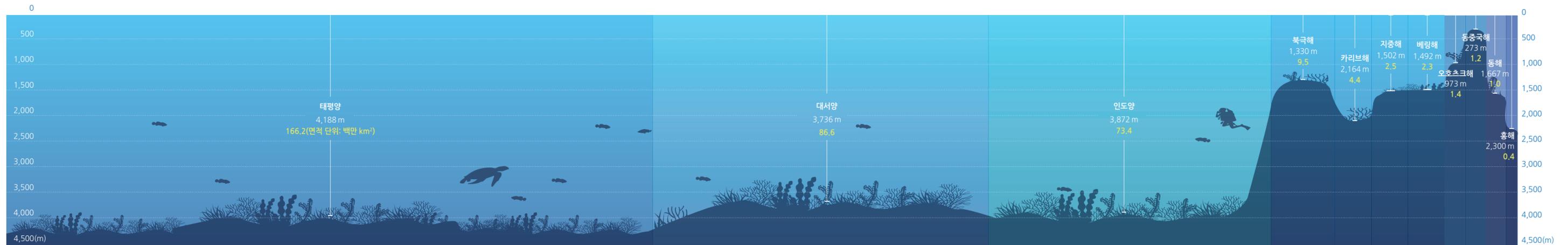
가장 큰 바다는 태평양은 동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으며 보통 적도를 기준으로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으로 나뉜다. 남태평양에는 2만 개가 넘는 섬이 있다. 대서양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과 면해 있다. 해저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 대서양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해령은 아이슬란드를 관통한다. 인도양은 아프리카, 중동,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연결하고, 남극해는 남위 65° 이상 남극 환류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북극해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대양으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대서양)와 홍해(인도양)를 연결하고,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한다. 대표적인 부속해로는 영국 동부의 북해(대서양), 튀르키예 북부의 흑해(대서양),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인 지중해(대서양), 세계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펀디만(대서양), 아라비아반도의 홍해(인도양), 태평양 북쪽 알류산 열도에 면한 베링해(태평양), 오호츠크해(태평양) 등이 있다.

바다에는 복잡한 작용에 의해 해류라는 일정한 움직임이 있다. 해류는 보통 적도 지역에서 극 지역으로는 난류가, 극 지역에서 적도 지역으로는 한류가 흐르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이바지한다. 해류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 모양을 그리며 순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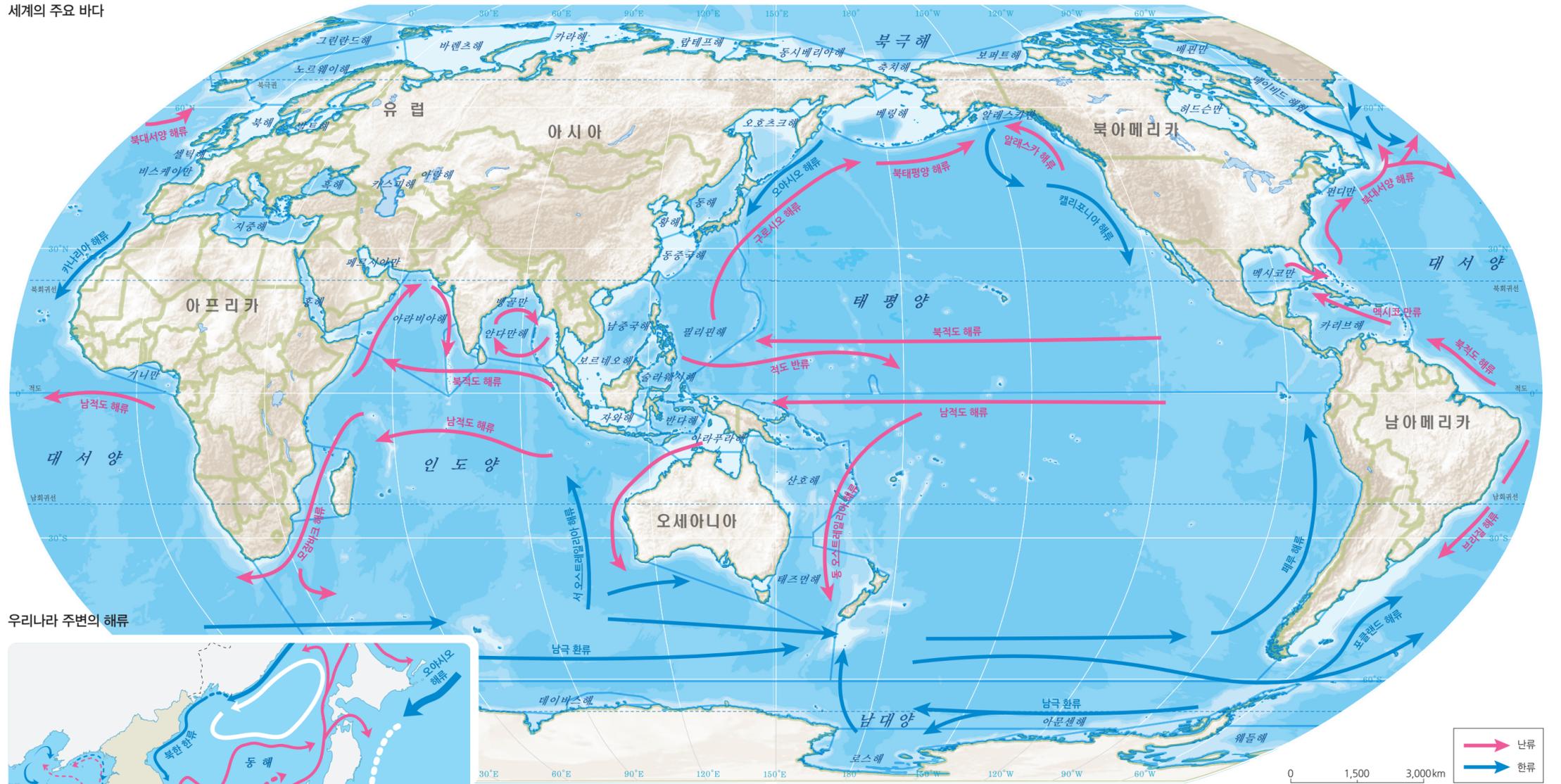
황해는 세계에서 조차가 큰 지역으로,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품고 있는 동해는 대양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수와 순환 시스템 등 대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양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며 세계 기후 변화 연구에서 중요한 장소로 소개된다.

주요 바다의 평균 수심(m)과 면적(백만 km²)



* 바다의 면적 및 수심은 측정 도구, 시기,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계의 주요 바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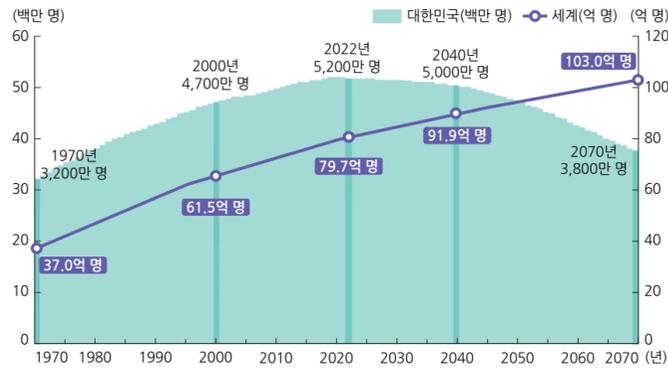
인구

세계에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남반구보다는 북반구, 북반구에서는 북위 20°에서 60° 사이, 해안과 하천 유역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같이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과 근대 산업이 발달한 서유럽에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고,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국토의 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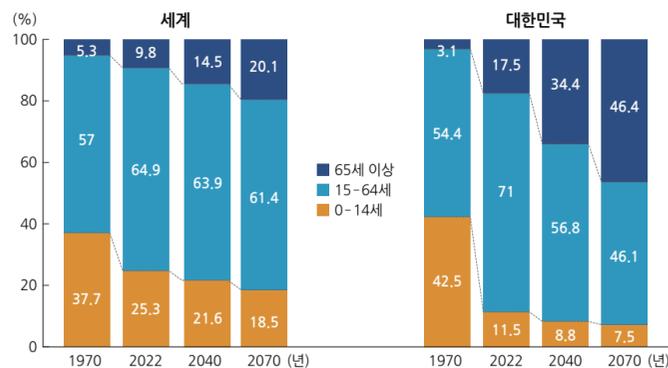
세계 인구는 2022년에 80억 명을 넘고, 2058년에는 100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2022년)를 넘어 고령 사회(고령 인구 14% 이상)이며,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152%가 넘는다. 또한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7% 이상)에서 고령 사회로 되기까지 걸린 시기는 17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는데,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20%이상)도 2025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과도 관련 있는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 2.32명보다 현저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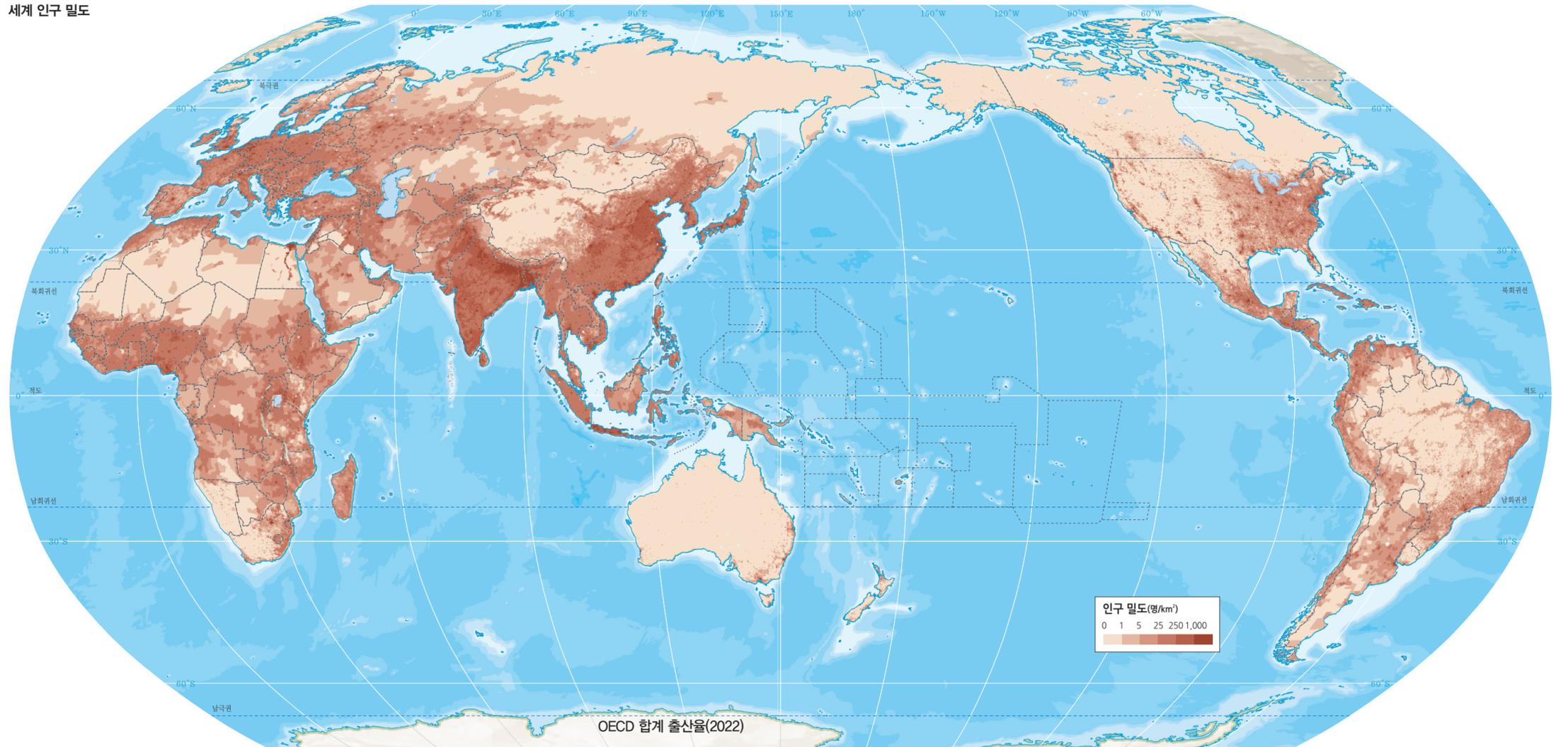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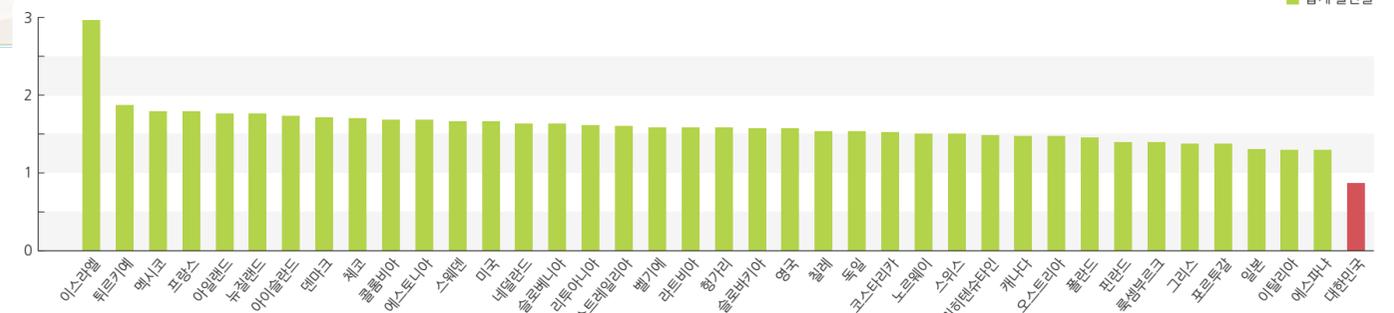
세계와 한국의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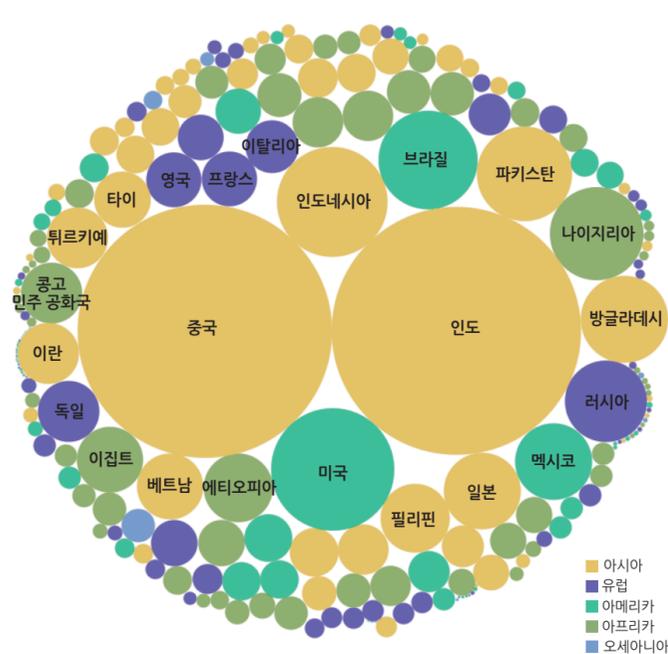
세계 인구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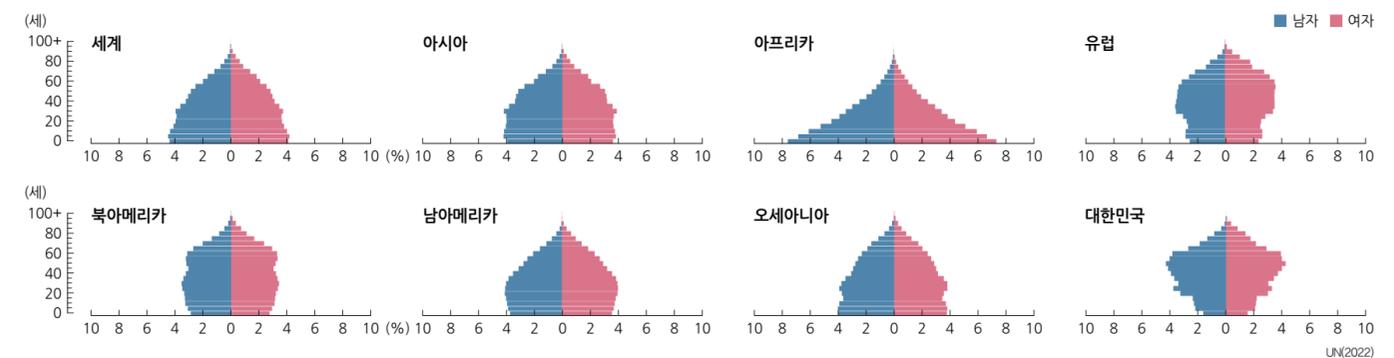
OECD 합계 출산율(2022)



세계 인구 구성



대륙별 인구 피라미드



경제

1인당 국민 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포함되지만 국내 총생산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70년에 280달러, 1980년 1,870달러였지만 2020년에 32,930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첫 나라' 등 많은 수식으로 표현되었고, 많은 개발 도상국의 모델이 되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2017년 이후 일본보다 높다. 이는 환율과 물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소득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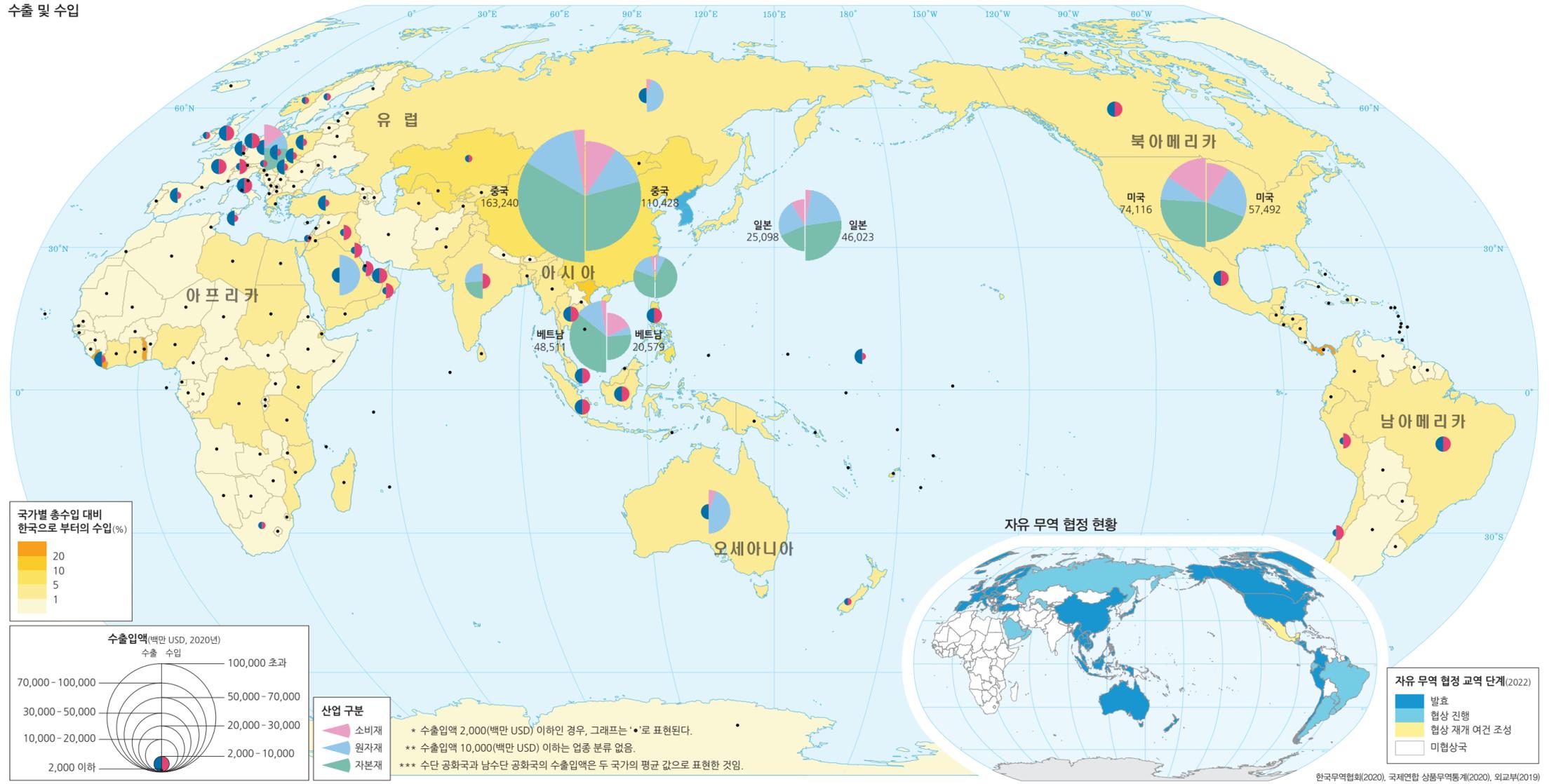
급격한 경제 성장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한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며,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세계 무역 규모 순위는 9위이다.

1인당 국민 총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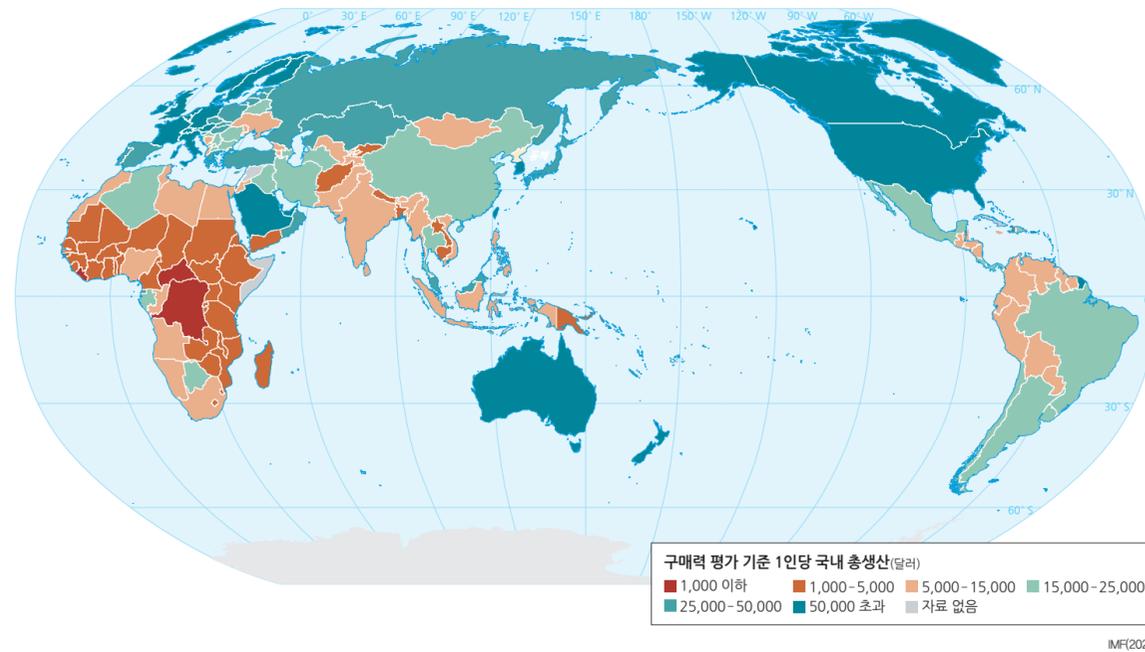


한편,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5년에 60.1%를 기록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85%를 넘어섰으며, 2015년 이후에는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무역 의존은 다른 국가와의 경제 통합도 한몫하고 있다. 경제 통합은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자유 무역 협정(FTA)부터 유럽 연합(EU)과 같은 단일 시장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칠레, 유럽 연합(EU), 미국 등 58개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발효된 상태이다. 국가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미국, 일본,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도 중국이며,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1위 무역 대상국이 된 이후 2020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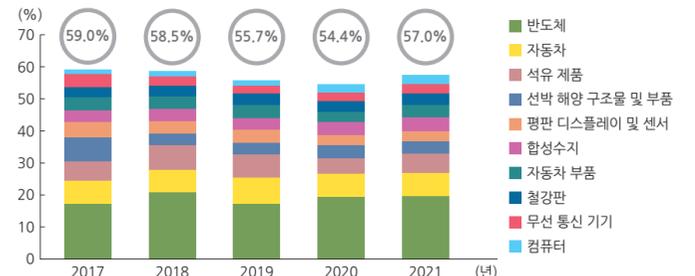
수출 및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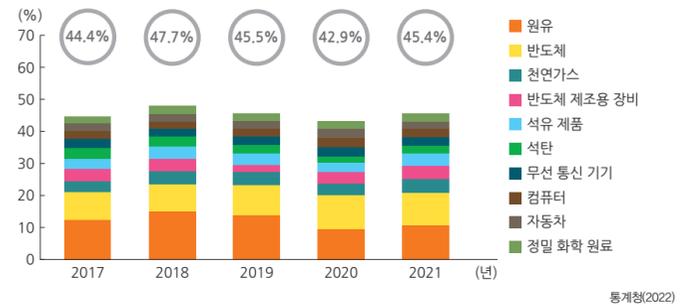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주요 품목의 수출 비중 추이



주요 품목의 수입 비중 추이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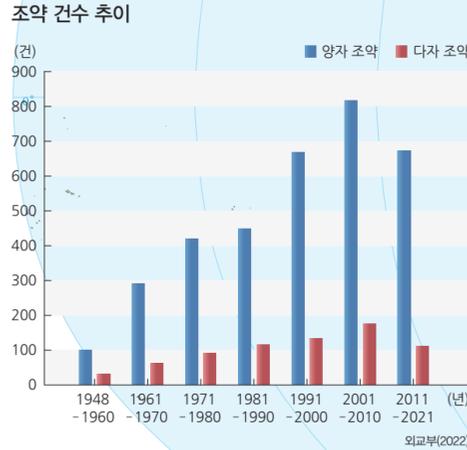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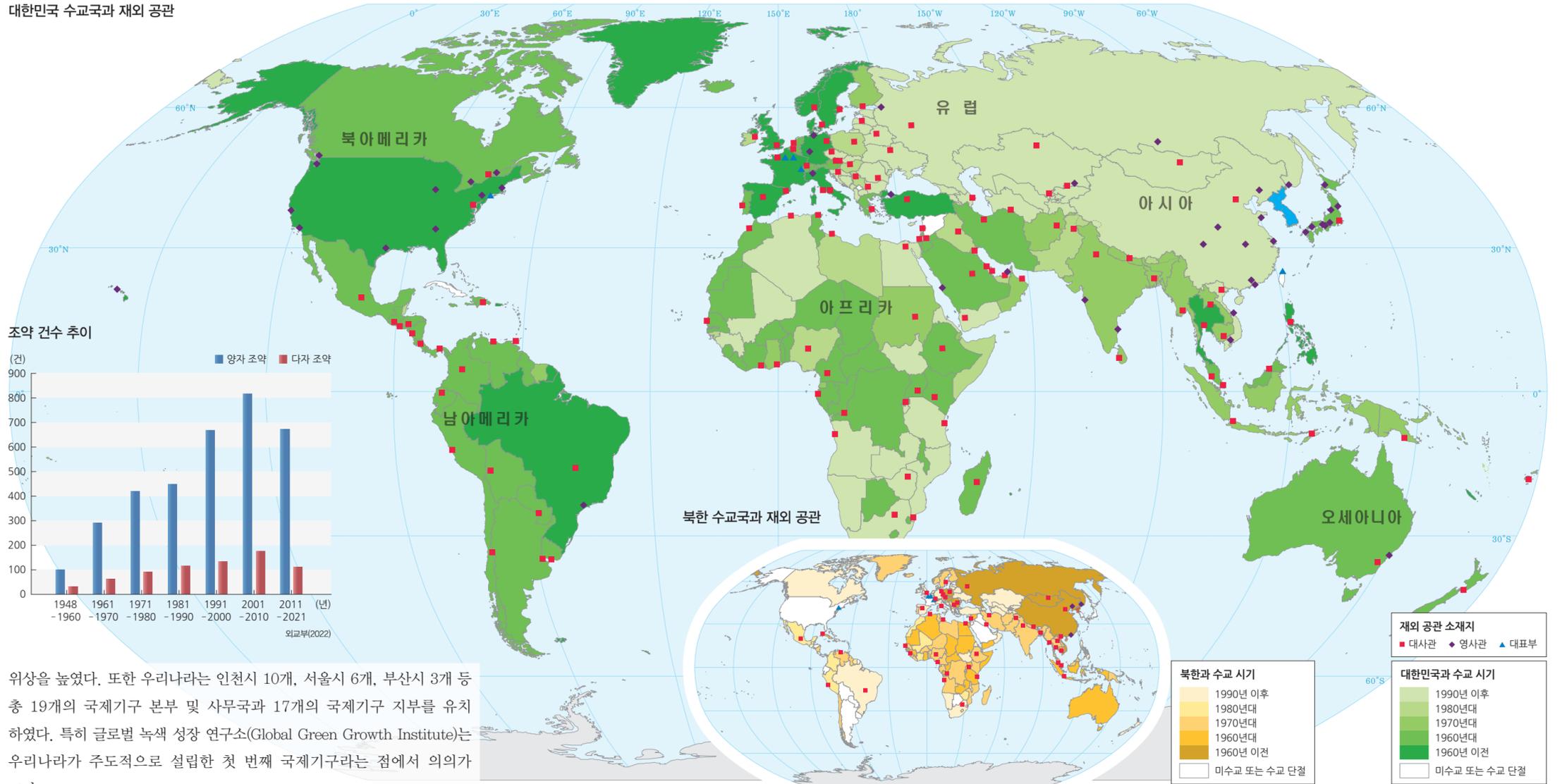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을 수교라고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우리나라(남한)는 2022년 현재 전 세계 19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시리아, 팔레스타인, 쿠바와는 수교 관계가 없다.

조약이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우리나라(남한)는 정부 수립 이후 조약 체결 건수(발효 기준)는 2021년 기준으로 3,418건이며 이중 다자 조약 또한 726건이나 된다.

재외 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하는 대사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남한)는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6개의 총영사관과 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재외 공관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지역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밀접한 경제, 사회,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협력의 장이 국제기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연합(UN)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만국 우편 연합(UPU), 세계 보건 기구(WHO) 등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007년에는반기문 장관이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수교국과 재외 공관



위상을 높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천시 10개, 서울시 6개, 부산시 3개 등 총 19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과 17개의 국제기구 지부를 유치하였다. 특히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 프랑스는 북한과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북한 대표부가 프랑스에 대한 북한의 일반 대표부를 겸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수교 체결 및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가입(2022)



국제기구 유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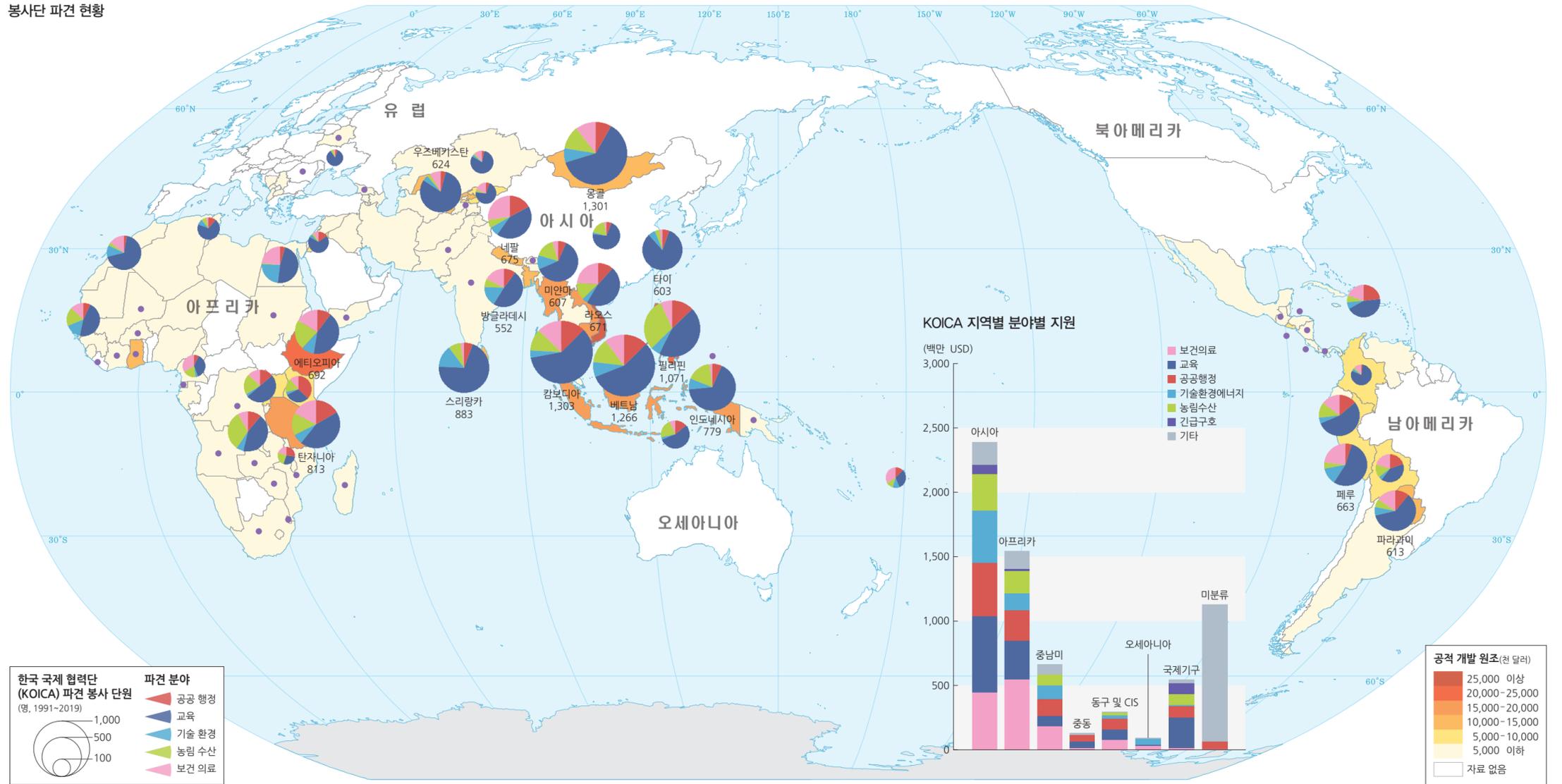


개발 협력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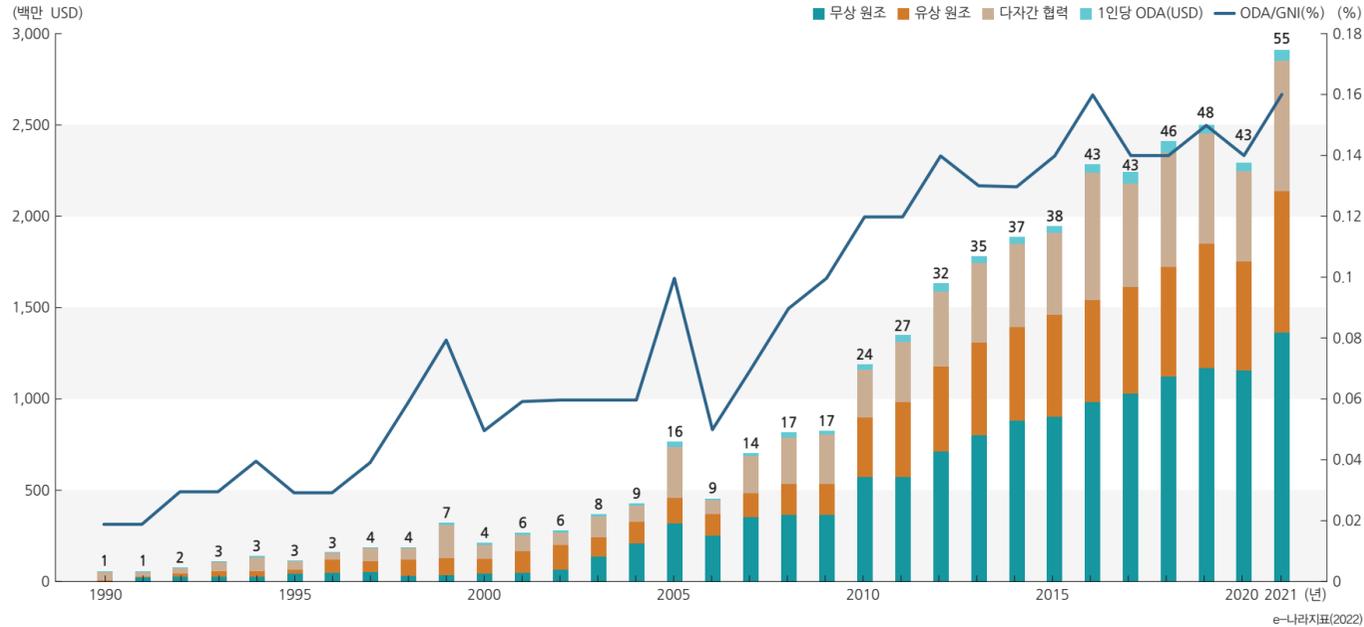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몇 안되는 국가로, 많은 개발 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및 한국 전쟁 이후 장기간 국제 사회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다 1995년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의 차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순기여 국가로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달라 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원조 공여는 1980년대 후반 유엔 개발 계획, 유엔 공업 개발 기구,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등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1991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 국제 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는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양자 간 원조와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기금 지원 및 활동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인당 ODA가 55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지원 수준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웃 국가에 비해 낮아 국제적 위상 및 국제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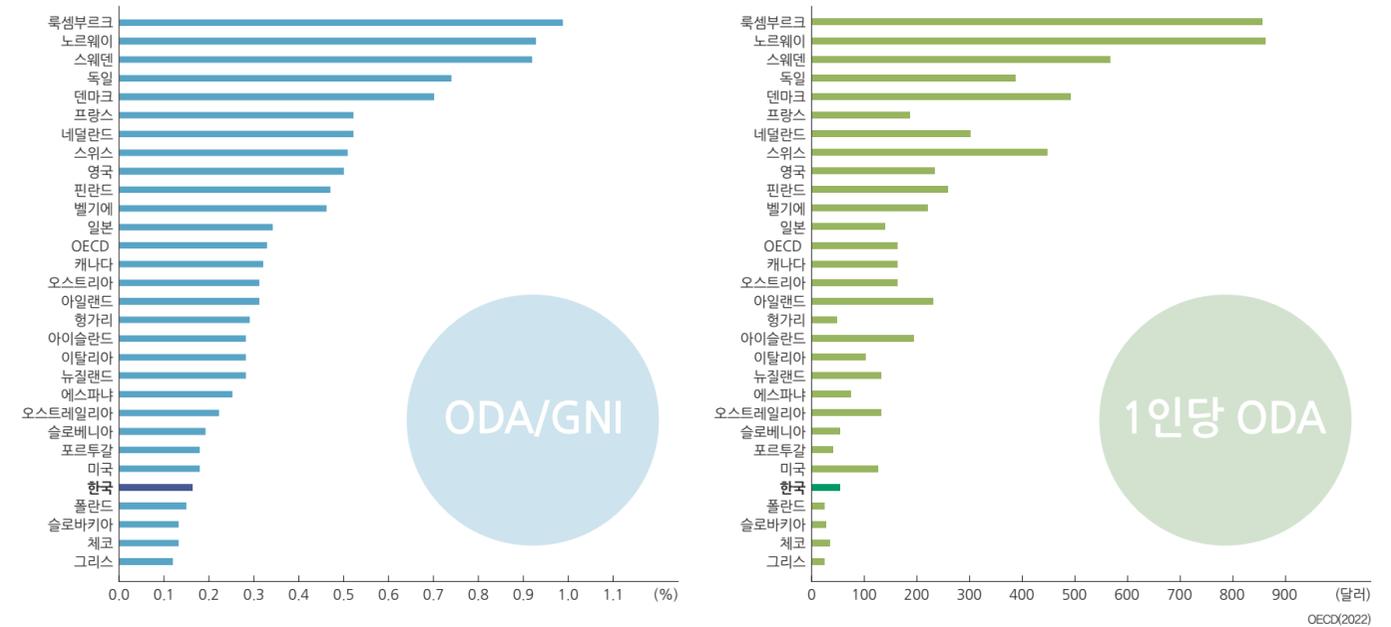
봉사단 파견 현황



유형별 공적 개발 원조(ODA) 추이



국가별 공적 개발 원조(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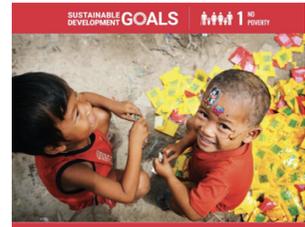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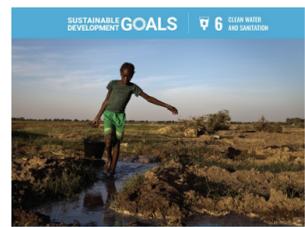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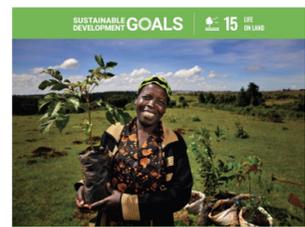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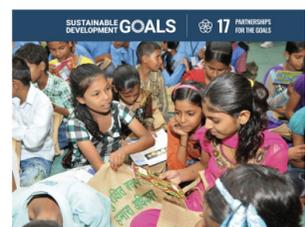


지속 가능 발전 목표(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

하고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K-SDGs)를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과 같은 5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 목표 등을 설정하여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K-SDGs의 세부 목표 주요 내용 및 주요 정책(제4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 2021-2040)

 <p>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빈곤 인구 비율을 줄이고 사회 보장 제도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며 빈곤층-취약 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및 재난 회복력 강화</p> <p>주요 정책</p> <p>공공 부조 제도 역할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등</p>	 <p>목표 2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취약 계층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p> <p>주요 정책</p> <p>공공 급식 활성화, 취약 계층 식품 지원 제도 확대, 농작물 재해 보험 확대, 친환경 농업 확산, 농업 유전 자원의 다양성 유지, 쌀 수급 안정 등</p>	 <p>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원 효율성 높은 산업화 추구</p> <p>주요 정책</p> <p>중소-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 금융, 혁신 성장 동력 육성, 제조업 제도 및 서비스업 고도화, 정부 R&D 투자 시스템 혁신,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확산 등</p>	 <p>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하위 40% 인구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p> <p>재정-임금-사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 중심적인 이민 정책 실시</p> <p>주요 정책</p> <p>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 장애인 고용 서비스 및 직업 재활 지원,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사각 해소, 실업 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 이민 정착 지원 및 인권 보호 강화 등</p>
 <p>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하며, 교통사고 등 인명 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노력</p> <p>모성 및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사망을 줄이며 저출생 극복과 인구 고령화 대비 및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p> <p>주요 정책</p> <p>만성 질환 관리, 자살 고위험 집단 관리,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고령화 대비 관리 체계 구축, 공공 의료 접근성 제고 추진 등</p>	 <p>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양질의 초-중등 교육 이수율 고도화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확대</p> <p>전문 및 직업 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 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 및 교사 확보</p> <p>주요 정책</p> <p>공교육 신뢰 제고, 고등 교육 기회 확대, 평생 교육-직업 교육 훈련-지속 가능 발전 교육 강화, 소외 계층 기초 교육 및 직업 교육 학습권 보장, 근등 교육을 위한 재경 투자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등</p>	 <p>목표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주택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며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p> <p>세계 유산을 보호-보존하고 재난 피해를 줄이며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의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고 공공 녹지 공간에의 접근을 보장</p> <p>주요 정책</p> <p>생애 단계-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무주택자 주택 공급 확대, 노후-취약 주거지 개선, 대중교통 분담금 제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개선, 도시 자연 확충,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축 등</p>	 <p>목표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키며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폐기물 발생 감소</p> <p>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녹색 소비와 환경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속 가능 관광을 지원하며, 화석 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p> <p>주요 정책</p> <p>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배출수-가-선별 체계 혁신, 생산 단계 및 생활 속 폐기물 감축, 정경 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등</p>
 <p>목표 5 성평등 보장</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모든 차별 및 인신 매매, 성적 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p> <p>여성 권한 강화를 위해 기술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 인력을 양성하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법 채택</p> <p>주요 정책</p> <p>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 폭력 근절-예방, 평등하게 일할 권리-기회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 대표성 제고 등</p>	 <p>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안전한 식수와 하수도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물 공급 안정성 도모</p> <p>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물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참여 강화</p> <p>주요 정책</p> <p>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 하수 처리장 개선 및 기능 확대, 상수 오염원 억제, 물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물 순환 정책 강화,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물 관리 시민 참여 지원 확대 등</p>	 <p>목표 13 기후 변화와 대응</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기후 변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 재해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유지</p> <p>주요 정책</p> <p>기후 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 기후 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기후 변화 교육 강화,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등</p>	 <p>목표 14 해양 생태계 보전</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오염 물질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바다 생태 환경 및 수산 자원 서식지를 관리하며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p> <p>수산 자원 관리를 위해 과도한 어업을 지양하고 해양 보호 구역 면적을 확대하며, 해양 과학 연구 역량 제고 및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행위 지원</p> <p>주요 정책</p> <p>육상 오염 물질 차단,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 생태계 서식지 보호 및 해양 생물 보호, 불법 어업 근절, 해양 보호 구역 확대, 해양 신산업 육성, 어업인 복지 여건 개선 등</p>
 <p>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적 접근 보장 및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대기 오염을 최소화</p> <p>주요 정책</p> <p>친환경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신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등</p>	 <p>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취약 그룹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p> <p>주요 정책</p> <p>혁신적 포용 성장 기반 마련, 취약 계층 대상 노동 정책 강화, 코로나-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년 구직 지원, 일-생활 균형의 확보 등</p>	 <p>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p>	<p>세부 목표 주요 내용</p> <p>개발 도상국 SDGs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 무역 체계를 촉진하며 개발 도상국 과학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p> <p>주요 정책</p> <p>국제 사회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ODA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개발 도상국 투자 증대 촉진, 다양한 협력 기구 선정 및 다자 협력 협의체 운영 등</p>		

세계 유산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사물 또는 문화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 1992년 '세계의 기억(세계 기록 유산)' 사업,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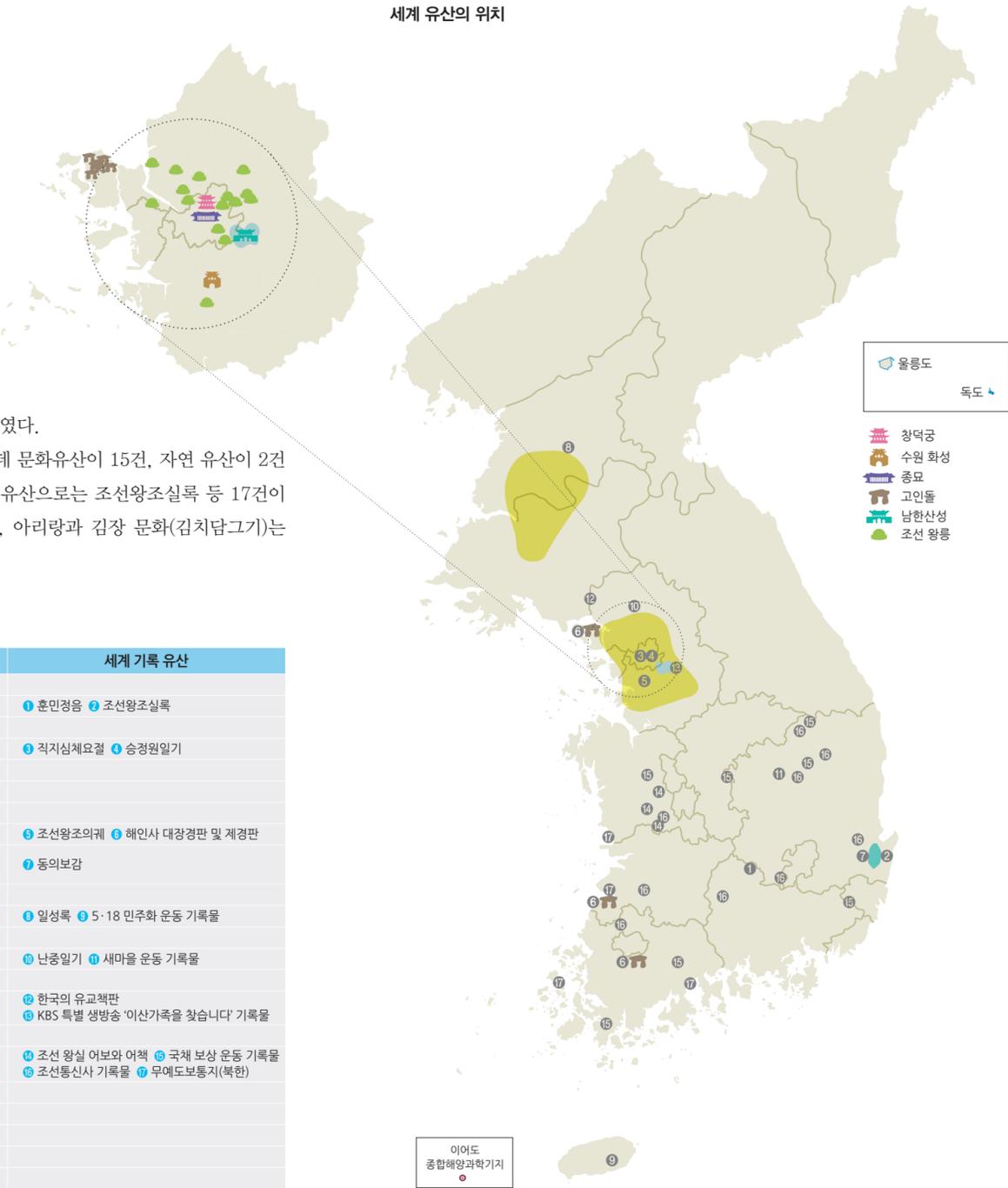
우리나라(북한 포함)에는 2022년 현재 17건의 세계 유산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15건, 자연 유산이 2건이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는 종묘 및 종묘 제례악 등 24건,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조선왕조실록 등 17건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씨름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최초의 유산이고, 아리랑과 김장 문화(김치담그기)는 남한과 북한이 같은 내용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유산이다.

세계 유산의 등재 연도

등재 연도	세계 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 유산
1995	① 해인사 장경판전 ② 석굴암과 불국사 ③ 종묘		
1997	④ 창덕궁 ⑤ 수원 화성		① 훈민정음 ② 조선왕조실록
2000	⑥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⑦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1		①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③ 직지심체요절 ④ 승정원일기
2003		② 판소리	
2004	⑧ 고구려 고분군(북한)		
2005		③ 강릉 단오제	
2007	⑨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⑤ 조선왕조의궤 ⑥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9	⑩ 조선 왕릉	④ 강강술래 ⑤ 남사당놀이 ⑥ 영산재	⑦ 동의보감
2010	⑪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와 양동	⑦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⑧ 처용무	
2011		⑨ 가곡 ⑩ 대목장 ⑪ 매사냥	
2012		⑫ 줄타기 ⑬ 택견 ⑭ 한산 모시짜기	① 일성록 ②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3	⑫ 개성 역사 기념물 및 유적지(북한)	⑮ 아리랑	
2014	⑬ 남한산성	⑮ 김강 문화	⑩ 난중일기 ⑪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5	⑭ 백제 역사 유적 지구	⑯ 조선 민요 '아리랑'(북한) ⑰ 농악	⑫ 한국의 유교책판 ⑬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6		⑱ 김치 담그기 전통(북한) ⑲ 줄다리기	
2017		⑳ 제주 해녀 문화	⑭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 ⑮ 국제 보상 운동 기록물 ⑯ 조선통신사 기록물 ⑰ 우해도보통지(북한)
2018	⑮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㉒ 씨름(남북 공동)	
2019	⑯ 한국의 서원		
2020		㉓ 연등회	
2021	⑰ 한국의 갯벌		
2022		㉔ 한국의 탈춤	

문화재청(2019)

세계 유산의 위치



문화재청(2019)



①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등재, 장경판전 일관)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 유산인 고려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원형인 통풍과 방습,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판가의 진열 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고려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② 석굴암과 불국사 (1995년 등재, 불국사)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의 석굴암과 쌍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 고도인 경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적 열정, 예술혼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기념비적인 사원이다.



③ 종묘 (1995년 등재,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는 조선 시대 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유교 사당이다. 건축을 배치 원리에 따라 좌청룡에 해당하는 궁궐의 동쪽에 세워졌다. 부속 건축물로는 영녕전, 공신당, 칠사당 등이 있다.



④ 창덕궁 (1997년 등재, 인창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재건하였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한 후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피 온 법궁이었다.



⑭ 백제 역사 유적 지구 (2019년 등재, 공신성)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백제의 유적은 중국, 일본 등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 역사 유적은 중국의 도시 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한 증거를 보여 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한다.



⑮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2018년 등재)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산사는 한반도 남쪽 지방에 위치한 7개 불교 산지 승원(통도사, 부석사, 불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으로 이루어져 있다. 7~9세기에 창건된 이 사찰들은 신앙과 영적 수행, 승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⑯ 한국의 서원 (2019년 등재)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한국의 서원은 조선 시대 성리학 교육 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소수서원, 병산서원 등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이다.



⑰ 한국의 갯벌 (2021년 등재)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한국의 갯벌은 황해의 동쪽이자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의 4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곳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다.



⑤ 수원 화성 (1997년 등재, 화서문)

경기도 수원시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축성된 평산성이다. 도성 남쪽을 방위하는 기능과 함께 성내의 행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양 철학과 서양 건축 기술이 반영된 대표적 성곽이다.



⑧ 고구려 고분군 (2004년 등재, 동명왕릉)

평안남도, 평안직할시,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군이다. 63기의 무덤이 대동강 하류 양안의 넓은 범위에 걸쳐 8개 구분군을 이루고 있다. 무덤의 양식이나 내부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



⑥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년 등재, 고창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 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정치 체계는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⑨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히는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뽕귀굴), 바다에서 솟아 올라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요새 모양의 성산 일출봉 용화구 그리고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 수많은 오름 등이 있는 한라산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 준다.



⑦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0년 등재, 안압지동굴)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은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 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 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릉원 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 지구, 왕경 방어 시설의 핵심인 산성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⑩ 조선 왕릉 (2009년 등재, 동구릉 중 건원릉)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조선 왕릉은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서울 시내(정릉-현인릉-선정릉-태강릉-의릉), 서울 동쪽(동구릉-홍유릉-광릉-사릉-영녕릉), 서울 서쪽(서오릉-서삼릉-은릉-파주 삼릉-파주 정릉-김포 정릉-용건릉), 강원도 영월(장릉)에 나뉘어 있다.



⑪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 (2010년 등재, 하회 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14~15세기에 조성된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씨족 마을이다. 조선 초기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지와 배치가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 양반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낙동강이 'S' 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된 하회 마을은 풍산 류씨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양반과 서민의 생활이 공존하고 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의 두 가문에 의해 형성된 양동 마을은 수백 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담길이 아름답다.



⑫ 개성 역사 유적 지구 (2013년 등재, 왕건릉)

황해도 개성시
개성 역사 유적 지구는 고려 시대의 수도인 개성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이곳에는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개성 첨성대, 만월대, 고려 성군관, 송양 서원, 선죽교, 표충사 및 왕건릉, 공민왕릉, 명릉 등 7개의 능이 분포하고 있다.



⑬ 남한산성 (2014년 등재, 성곽 남문)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은 조선 시대의 왕도를 동쪽에서 방위하던 산성이다.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다. 병자호란 때 청군의 주력 부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



1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2019년 등재)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제향 의식과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 노래, 춤을 말한다.



2 판소리 (2003년 등재)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창, 말, 몸짓을 섞어 가며 구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이다.



3 강릉 단오제 (2005년 등재)

단오 전후에 강원도 강릉 지방에서 행하는 마을굿이다.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해 서낭신에게 굿을 올리며 각종 민속놀이도 한다.



4 강강술래 (2009년 등재)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한가위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5 남사당놀이 (2009년 등재)

남사당놀이는 남사당패가 농촌을 돌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기를 하는 놀이를 말한다.



6 영산재 (2009년 등재)

영산재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불교에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년 등재)

제주 칠머리당에서 해녀들이 영등 할머니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8 처용무 (2009년 등재)

처용무는 액운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 궁중 무용에서 처용탈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9 가곡 (2010년 등재)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음악이다.



10 대목장 (2010년 등재)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목장, 목공, 목수라 한다. 또한 궁궐, 사찰,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을 대목(大木)이라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11 매사냥 (2010년 등재)

매사냥은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꿩이나 작은 짐승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12 줄타기 (2011년 등재)

줄광대나 줄꾼이 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 놀이이다.



13 택견 (2011년 등재)

유연한 동작으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이다.



14 한산 모시짜기 (2011년 등재)

충남 한산 지역에서 모시줄을 재료로 삼아 직물을 짜는 일을 말한다.



15 아리랑 (2012년 등재) 17 아리랑 민요(북한) (2014년 등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남한에서는 정선과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위시한 전역에 구전 아리랑이 존재한다.



16 김장 문화 (2013년 등재) 18 김치 담그기 전통(북한) (2015년 등재)

김장은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근 김치를 말한다. 김치 담그기는 한민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음식 전통 중 하나이다. 겨울 한 철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김장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김치 담그기의 노하우와 재료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가족과 마을, 공동체 사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이들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돈독하게 한다.



19 농악 (2014년 등재)

농악은 집단 농사일을 할 때나 명절에 흥을 돋우기 위한, 악기가 곁들여진 춤과 노래이다.



20 즐다리기 (2016년 등재)

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즐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서 널리 볼 수 있다. 결속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경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행사이다.



21 제주 해녀 문화 (2016년 등재)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이다. 또한 '제주 해녀 문화'는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 왔고, 생태 친화적인 어로 활동과 공동체에 의한 어업 관리는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22 씨름(남북 공동) (2018년 등재)

두 선수가 허리와 한쪽 허벅지에 살바를 두른 채 상대의 살바를 잡고 여러 기술을 이용해 반대편 선수를 쓰러뜨리는 대중적인 놀이이다. 살바를 사용하는 점, 승자에게 풍년을 상징하는 황소를 수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도 큰 의미가 있다.



23 연등회 (2020년 등재)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오면 대한민국 전역에 소망을 담아 만든 등을 밝히고 장대한 행렬을 이루어 거리를 행진하는 의식이자 축제이다.



24 한국의 탈춤 (2022년 등재)

우리나라의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18개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관객과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여유를 주고 받으며 비판할 것을 비판하되 크게 하나 됨을 지향하는 유쾌한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다. 또한 정식 무대 없이 공연만 있어도 공연이 가능하여 배우와 관객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 훈민정음 (1997년 등재)

국보 제70호, 서울특별시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 낸 판각 원본이다. 글자를 만든 원리가 과학적이고, 배우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2 조선왕조실록 (1997년 등재)

국보 제15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동서양의 정세와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직지심체요절 (2011년 등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의 직지심경성성불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인쇄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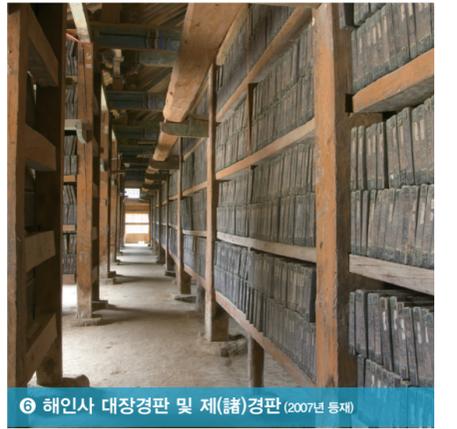
4 승정원일기 (2011년 등재)

국보 제30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승정원은 조선 시대 왕영의 출납을 담당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다. 1623년부터 1910년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5 조선왕조의궤 (2007년 등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주요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 내고 있는 보고서이다. 조선 시대 600년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諸)경판 (2007년 등재)

국보 제32호, 합천군 해인사 소장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 시대에 간행되어 '고려 대장경'이라고도 하며, 대장경 판수가 8만 여 개에 이르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7 동의보감 (2009년 등재)

보물 제1085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조의 명을 받아 어의 허준(1539~1615)이 집필하여 1610년(광해군 3)에 완성하고 1613년에 간행한 의학 책이다. 일반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서'이다.



8 일성록 (2011년 등재)

국보 제15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융희 4)까지 151년 동안 국정 운영 내용을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패변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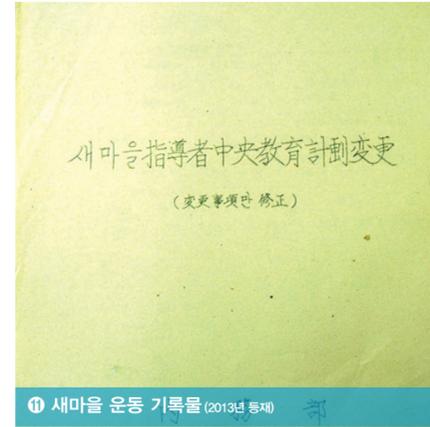
9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1년 등재)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5·18 기념재단, 광주광역시청 소장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 시민, 단체,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물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기록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10 난중일기 (2013년 등재)

국보 제76호, 현충사 소장
난중일기는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에 군중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다.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시작부터 이순신이 노랑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11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3년 등재)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장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 연설문과 결재 문서, 사진 영상 등 약 22,000여 건의 자료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발전의 한 모델이자 민간 협력의 성공적 사례이다.



12 한국의 유교책판 (2015년 등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은 조선 시대에 719종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종과 서원에서 기탁한 총 64,226장으로 되어 있다. 유교책판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모두 지식인 계층의 여론에 의해 제작된 점, 공동체 출판 방식으로 제작된 점, 550년 동안 지속된 집단 지식의 결과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16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년 등재)

한국방송공사(KBS), 국가기록원, 한국결핵조사연구소 소장
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방송한 내용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이 방송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년 등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와 어책은 금은옥에 아름다운 명칭을 새긴 어보,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쓴 교명, 아름다운 명칭을 수여하는 글을 새긴 옥책과 죽책, 금동판에 책봉하는 내용을 새긴 금책 등이다. 이들은 현재의 왕에게는 정통성을, 사후에는 권위를 보장하는 성물로 숭배되었다.



1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017년 등재)

한국금융사박물관 등 소장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은 파식민지 국가에게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우고 그것을 빌미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동원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외채로 인한 양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외채로 시달리는 다른 파식민지국에 큰 자극이 되었다.



13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2017년 등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소장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12회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외교사절단에 관한 외교, 여정, 문화 교류 자료들이다. 평화 공존과 타 문화를 존중하는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17 무예도보통지(북한) (2017년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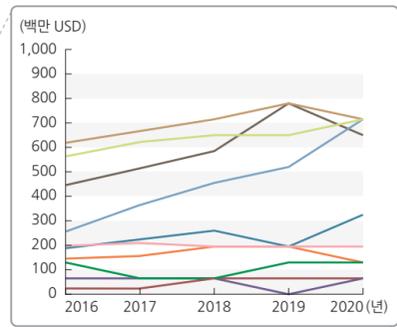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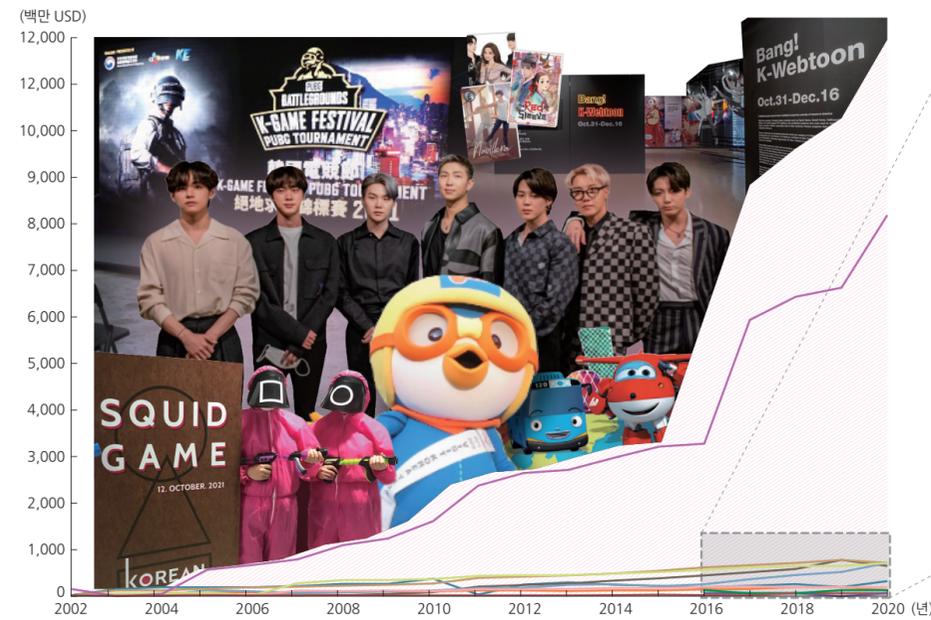
평양시 인민대학습당,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90년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된 이 책은 태권도의 근원에 해당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를 도해와 함께 설명한 종합무예서이다. 또한 동아시아 무예의 바탕인 중국의 무예나 일본의 무예도 함께 수록하여 무예의 요람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우월성을 자랑하는 동아시아 무예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한류와 스포츠

‘한류(韓流)’라는 단어가 처음 쓰일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기업이나 한국 제품의 유행을 의미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 가요, 캐릭터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대중문화의 확산은 K-Culture라는 이름으로 전통문화, 음식, 언어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어와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동호회 등을 찾는 발걸음으로 연결되었으며,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한국 관련 학과의 위상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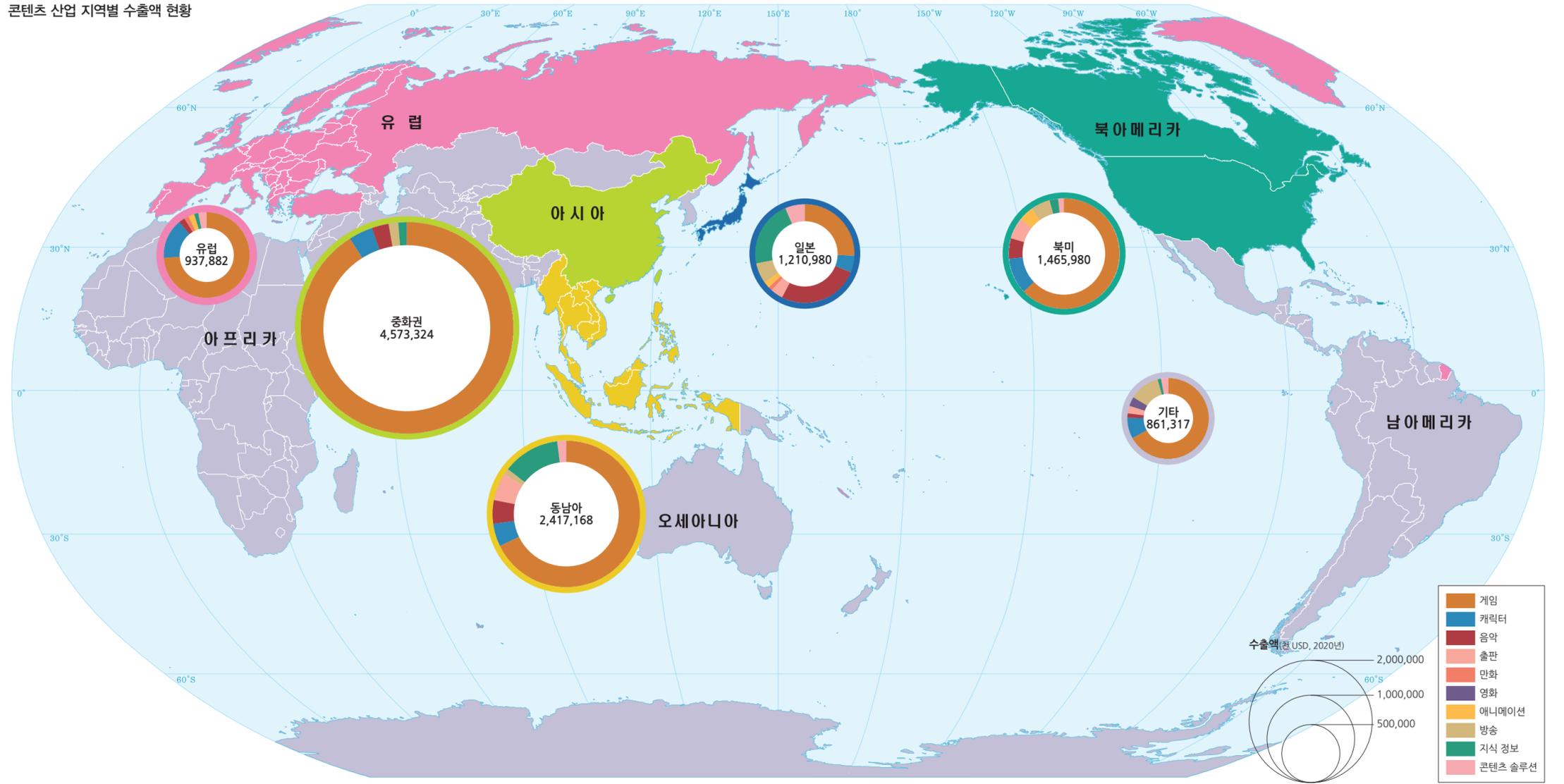
스포츠 또한 한류를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흔히 한류의 원조라 불리는 태권도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매개가 되었으며,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2002년 한·일 FIFA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등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6번째 국가이다. 더불어 점차 확산되는 e-스포츠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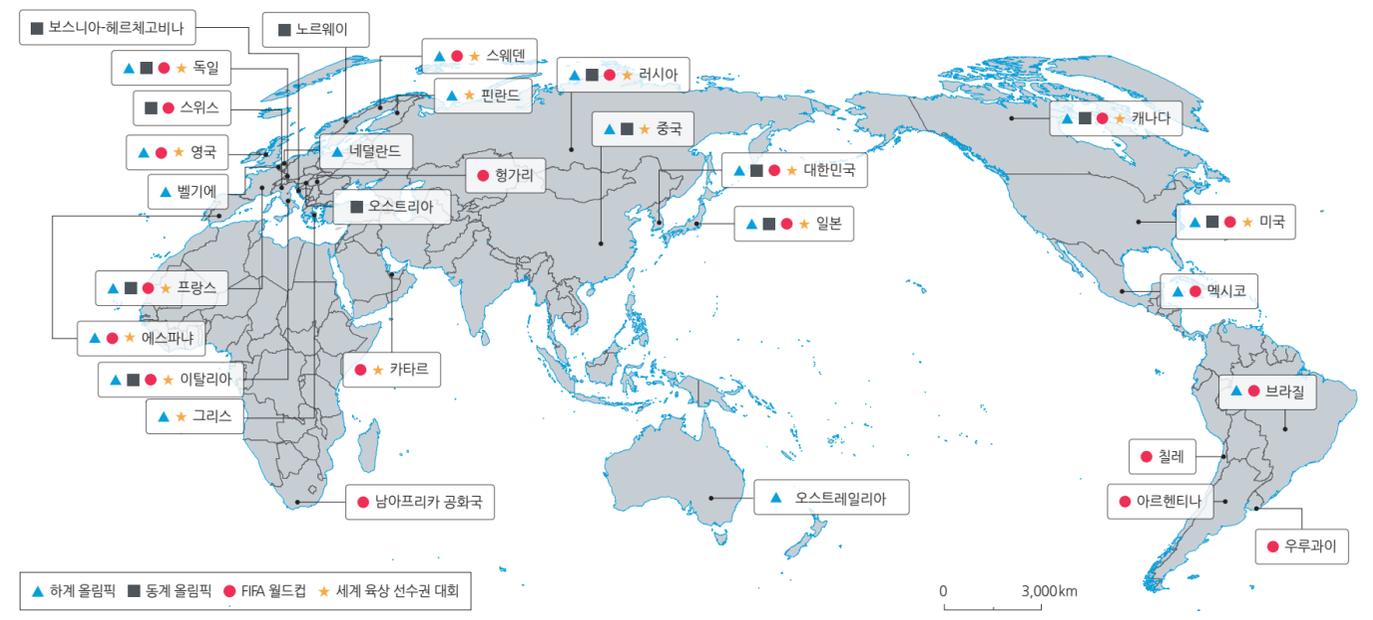
11,924	합계	345	출판
8,193	게임	233	콘텐츠 솔루션
715	캐릭터	134	애니메이션
691	지식 정보	54	영화
679	음악	62	만화
692	방송	119	광고

콘텐츠 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문화체육관광부(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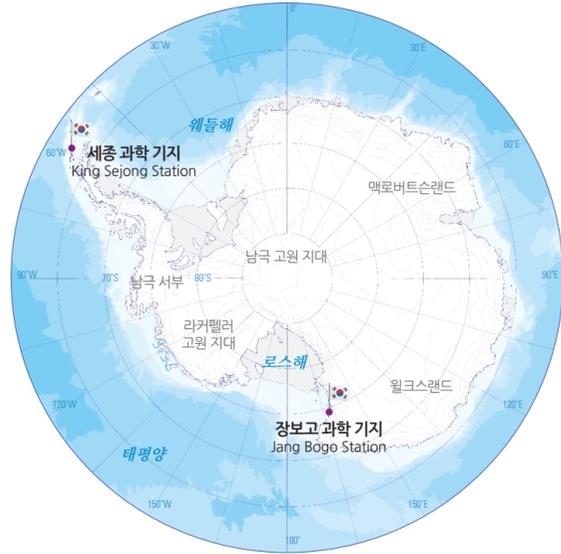
4대 스포츠 대회 개최 국가 및 개최 예정 국가



문화체육관광부(2022)

연구와 탐험

주요 남극 기지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와 탐험은 1988년 남극 킹조지섬 세종 과학 기지 건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극 세종 과학 기지 건설 이후 대한민국은 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대기과 지질, 해양, 생물, 기후 변화, 고환경 등 다양한 연구와 탐험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 과학 기지를 건설하여 남극점에 보다 가까운 남극 대륙으로 연구와 탐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09년부터 기지와 기지 주변의 측량 및 지도 제작을 수행하며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인수봉, 아우라지 등 총 27개의 남극 고유 지명을 남극 지명 사전에 등록하였다.

북극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2002년 북극 다산 과학 기지 개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북극 이사회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남극과 북극에 모두 과학 기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극지 쇄빙 연구선인 아라온호가 건조되어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라온호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항로를 개척하며, 남북극 과학 기지에 대한 보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라온호가 수집한 해저 지형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에는 '돌고래 해저 구릉군'과 '꽃신 해저능'이라는 우리말 남극 해저 지명 2건을 국제 수로 기구(IHO)에 등록하였고,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 과학 기지 주변 해역의 '잠정판해도'를 제작·발간하였다.

남극 세종 과학 기지



남극 세종 과학 기지



남극 장보고 과학 기지



남극 장보고 과학 기지



북극 다산 과학 기지



북극 다산 과학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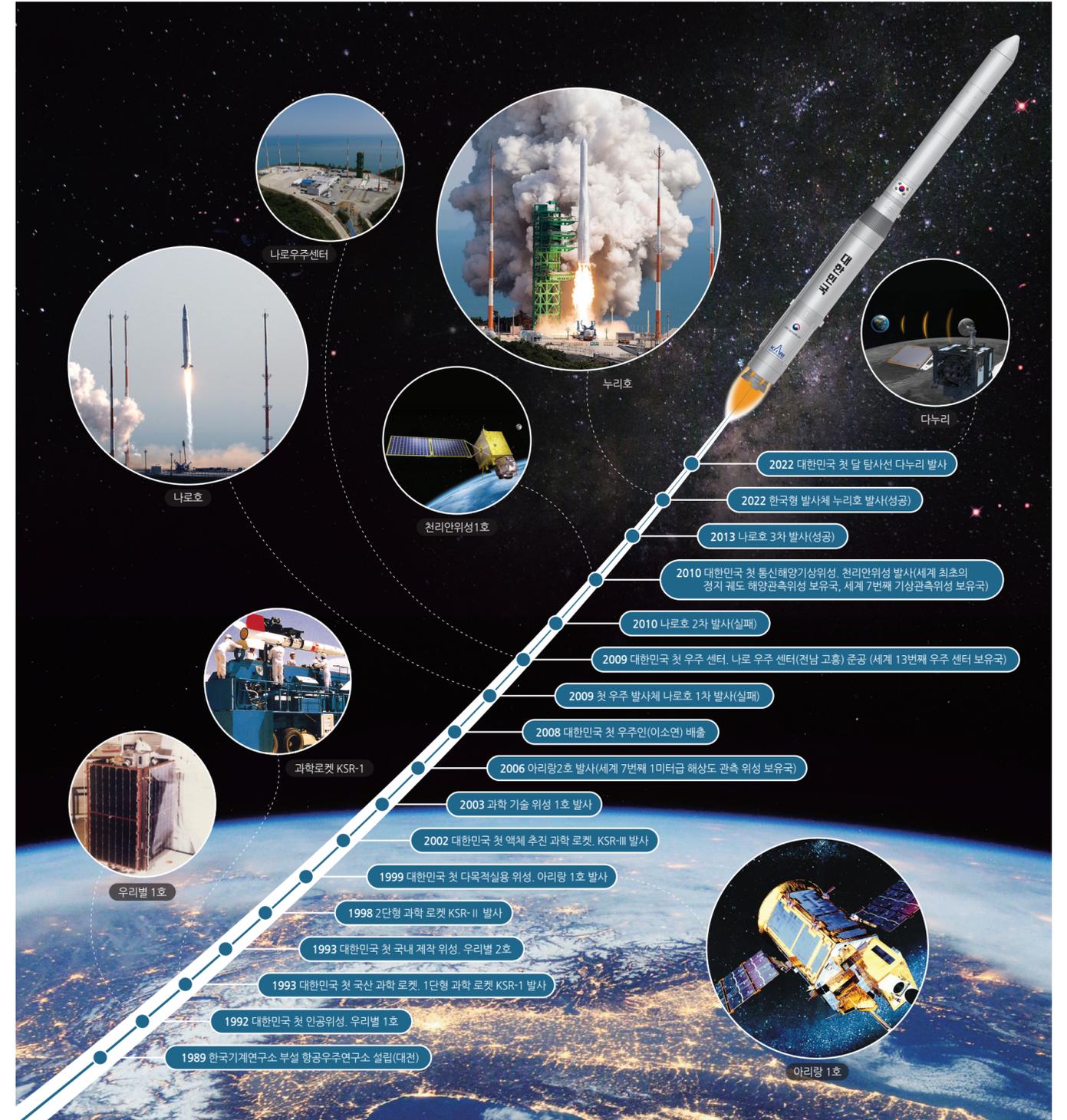
아라온호 항해 경로



아라온호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



우주 개발은 위성 부분과 우주 발사체(로켓)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개발은 1992년 8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남아메리카의 기아나에서 발사되면서 부터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위성을 보유한 22번째 나라가 되었다. 그 후 통신 위성인 무궁화,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인 천리안 까지 쏘아 올렸다. 특히 천리안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의 정지 궤도 해양 관측 위성 보유국이자, 미국·중국·일본·유럽 연합·인도·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기상 관측 위성 보유국이 되었다. 우주 발사체

(로켓) 부분에서는 2013년 1월 '나로호(KSLV-1)'를 전라남도 고흥군 외사로도 우주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우리나라는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을 만든 나라를 일컫는 스페이스 클럽에 1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2년에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독자 힘으로 수행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